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7 | 2021. 09. 01

바이든 행정부 200일, 그리고 한미동맹
신경수

인간적 소통과 리더십의 근본 경청
윤원식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위기관리
최규상

바이든 행정부 200일, 그리고 한미동맹

신 경 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가속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나고 있다. 동맹 및 우방국 협력이 복원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 등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 등 한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과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미래 한반도 상황과 관련 복잡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미국은 지난 5월 21일,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최초의 비대면 다자 정상회담이었던 미·일·호·인도 등 4개국이 함께한 쿼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우방국 협력을 우선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규범에 기반한 기존 국제 질서를 변경하려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를 분명히 하였다. 2022년 초에 발간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 세계전략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 안보, 경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보다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한국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공동성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

미국의 전 세계전략과 한미동맹

미국의 전 세계전략은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인도태평양전략 등에 잘 나와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발표된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등을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 중심 이동, 중국 견제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등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발표한 기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의 대전략, 전 세계 전략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200일을 보면서 가장 큰 우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 당근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제재를 풀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북 정책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대북 정책을 써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 비핵화 노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유지와 중국 견제가 앞서 있는 모습이다.

미·북 대화에 대해서도 미국, 북한 모두 절박감이 없다. 미국은 할 바를 다하고 있으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북·중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당장 미·북 대화가 합의되어도 과거처럼 바이든-김정은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무회담을 통해 bottom-up 식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도 새로운 당근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향상되어만 간다. 중국도 더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안이 시급해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 규범에 기반 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국제 질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준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동참하겠다는 약속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질서에 위협을 주고 있는 나라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정과 번영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파괴가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 고려사항

최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탈레반 정권 장악은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 전략과 미국의 전 세계전략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동맹의 노력에 함께 하면서 글로벌 동맹으로 나가야 한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 TF를 가동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기 이전에 양자 간 고위급에서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한다. 아울러 성 김 대사를 인도네시아 대사 및 대북 특사로 겸직시킬 것이 아니라, 대북 특사에 전념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전 세계전략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 및 전 세계 안보 현안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논란보다는 다양한 국제 현안과 다자 협력기구의 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기여와 참여를 통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해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개념 수준의 확장억제 공약에만 의존할 수 없다.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핵 공유체제 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당장 전술핵을 배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핵 기획그룹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전략협의체 신설, 핵무기 운용연습체제 발전 및 시행 등이 필요하다.

미국은 공고한 동맹 유지와 역내 안정을 위해 연합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연합연습 중단결정과 야외기동훈련의 축소가 동맹,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연합연습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중심축이다. 군의 존재 가치인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연합연습은 어떠한 협상에서도 non-starter다.

인간적 소통과 리더십의 근본 경청

윤 원 식

(재)(글로벌스마트융합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초연결 시대에 소통이 안 되는 역설

디지털 문명의 총아 각종 ICT 기기가 우리 생활 곳곳에 융복합 되어 나날이 변화 발전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되어 생활의 편의와 편리함을 더해주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연결되고 통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과 교류는 물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이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지금은 접촉이 아닌 ‘접속’의 시대

가장 큰 요인은 핸드폰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핸드폰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의 간접적인 대화나 교류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이른바 접촉이 아닌 ‘접속’의 시대이다.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와 미디어 기기를 통해 얼굴 한 번 본적 없고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없는 지구촌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와 교류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과 접속은 시공간의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주된 수단인 핸드폰이다. 이제 핸드폰은 우리 생활을 스마트하게 해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자 또 다른 나의 존재나 다름없다.

스마트 폰의 일상화와 디지털 치매(digital dementia) 현상

핸드폰은 손안에 있는 컴퓨터이자 카메라이고 전화기로서 움직이는 비즈니스 도구이다. 언제 어디에서든 떨어질 수 없는 분신이다. 핸드폰이기에 손에 늘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이 정상인 듯하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핸드폰은 일상의 시작과 끝이다. 핸드폰은 이제 명칭도 스마트폰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핸드폰이 ‘스마트 폰(smart phone)’이 되면서 사람들은 ‘논 스마트(non smart)’ 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는 잘 외우고 있던 전화번호, 노래 가사 등은 사람들의 기억 회로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치매’(digital dementia) 현상이 생활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간적 소통’의 분절과 ‘기계적 접속’의 증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인 접촉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가정,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위한 소통의 수단과 방법은 이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반면에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의 감소로 인해 인간적인 소통은 점점 분절 또는 단절되고 기계적 연결인 접속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세대 격차, 문화 격차를 낳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소통의 부족과 단절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미디어 기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가장 쉬운 합리화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인식 수준이 변화되고 있는 흐름에 순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떼’와 ‘꼰대’,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스토리리스닝’(storylistening)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올드(old)한 내 방식과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라떼’와 ‘꼰대’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라떼’와 ‘꼰대’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또는 지난 시절 어느 특정 상황에서의 무용담에서 비롯된다. 고정화된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조직 운영 전반에서 주로 윗사람들이 청자(聽者)가 아닌 화자(話者)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위주의 대화 방식과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과거의 특정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MZ세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라떼’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스토리리스닝’(storylistening)의 자세가 필요하다. 즉 화자(話者)가 아닌 청자(聽者)의 입장에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조직의 크고 작은 리더나 책임자는 조직 운영과 경영에도 이러한 ‘경청의 리더십’을 적용해야 한다. 팀이나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팀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촉진제로 삼을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가상 인간, 사이버 인간, 인공지능 로봇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가상 인간, 사이버 인간, 로봇 인간과의 대화와 소통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이미 마케팅 광고 시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가상인간(일명 버추얼 인플루언스, virtual influencer)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세상이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와 같이 놀아주는 정교하고 스마트한 가상인간, 사이버 인간을 하나씩 가지거나 공유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상 인간, 사이버 인간이 진짜 인간만큼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은 더 잘하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사람들과의 진정한 공감과 소통은 누군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내 얘기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 비로소 생기게 된다.

‘경청’, 즉 ‘스토리리스닝’(story listening)은 갈등 관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

우리 생활 곳곳에서 스토리 리스닝이 요구되고 있다. 회사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 가정에서 가족 간의 불협화음은 스토리텔링만 있고 스토리 리스닝이 없는 데서 연유한다. 스토리텔링 보다 스토리 리스닝이 더 많아진다면 대립과 반목, 갈등과 불화는 줄어들 수 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리더십을 다룬 책, 리더십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리더십의 공통점에는 대부분 이러한 경청의 요소가 들어 있다. 용어와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군이든 사회이든 구성원들과의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에는 ‘스토리텔링’ 보다는 ‘스토리 리스닝’이 더 많이 구현되어야 제대로 된 사람관리(병력관리)와 조직 관리를 통한 목표달성(임무완수)가 가능하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공감과 감동을 주어 조직의 화합단결과 성과확장에 기여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비전투 행정손실 사건의 상당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소통의 부재(不在), 연결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우나 구성원이 있었다면 인명손실의 안타까운 일들은 예방 가능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귀 기울여’ 듣는 경청(傾聽)은 소통과 리더십의 근본

스토리 리스닝은 ‘단순히’ 의견이나 보고를 들어주는 정도의 청취(聽取)하는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傾聽)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경청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돈 안 드는 소통의 도구이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과 관심이다. 경청은 갈등이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경청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소통이 잘 안 된다면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경청 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토리텔러인가 스토리 리스너 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경청은 ‘라떼’와 ‘폰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척도이다. 매사에 경청의 자세와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대화와 소통에 나선다면 일터와 삶터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구성원들이 내 마음을 읽을 때 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리더십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위기관리

최 규 상

(대전대학교 교수)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패러다임과 위협 양상의 변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4차 산업혁명’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산업과 과학기술에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과학기술이나 산업과 융합하고 3D 프린팅,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등의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거의 모든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능화하는 초연결과 초지능의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세 번의 산업혁명에 비해 훨씬 더 넓고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지대한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국가의 가치와 존립에 영향을 주는 위협 양상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도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와 테러, 질병 등 인위적인 재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발생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결합된다면 국가위기 위협 양상은 이전까지의 위협 양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 될 것이다.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과 같은 무인수송체계에 의한 무차별적 공격이나 해커에 의한 국가 기간통신망의 마비 등은 지금까지의 위협 양상과는 전혀 다른 범위와 속도로 훨씬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위협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는 세계 25위의 수준으로 스위스(1위), 싱가포르(2위), 네덜란드(3위), 미국(5위), 영국(6위), 7위(노르웨이), 일본(12위), 대만(16위)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즉,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패러다임과 위협 양상에 대한 대응태세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필요

일반적으로 ‘국가위기관리’란 국가의 존립과 중요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군사 위협이나 인공·자연 재난재해 등의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국가적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과 복구,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국가적 위기 양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관리 시스템도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및 작성 요령』 등에 근거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의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은 위기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위기관리 프로세스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프로세스별 조치사항 중 첫 번째 단계인 예방은 언제 어떠한 유형의 국가유형을 어떻게 억제 및 예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단계인 예방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대응태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세 번째 단계인 대응은 어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대응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 단계인 복구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복구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대응전략과 행동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국가위기관리 프로세스 전 과정에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대안의 적용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복잡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국가 존립 및 핵심 가치 위협요인에 대한 적절한 국가위기관리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혁신

국가위기관리의 프로세스는 현행 법규 및 관련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방(Prevention) → 대비(Preparation) → 대응(Response) → 복구(Recovery)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위협 요인이 안보환경의 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는 해도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위기관리 프로세스는 현행 시스템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준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위기 위협 양상이 기존의 위협 양상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조 현상 등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가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 위협 식별 및 분석과 국가위기 핵심요인의 예측 및 평가가하는 스마트한 국가위기관리 식별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비단계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요인에 의한 국가위기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국가위기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위기관리 제 가용요소와 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작동과 대응훈련 등을 통한 국가위기관리 대응 능력의 사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응단계에서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센터 운영, 지자체 및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 피해 최소화 등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통합 운용하되 국가위기관리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정보 및 조치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향후 유사 또는 동일 위협 발생 시 이를 조기에 식별, 조치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위기 상황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국가의 존립과 핵심적인 가치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래 국가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